

2019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신약의 정경 안의 놀라우신 그리스도

메시지 16

성 안의 보좌 위에 계신 어린양 하나님

성경 말씀: 계 4:2-3, 22:1-5, 21:23, 겔 1:22, 26-28

I. 어린양 하나님은 성 안의 보좌 위에 계신다—계 4:2-3, 22:1-5, 21:23.

- A.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양 두분 모두를 위한 보좌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양께서 하나이심, 즉 어린양-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이심을 가리킨다—계 22:1, 4:2-3.
- B. 영원 가운데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우리의 공급과 만족을 위해 흘러나온다.
- C. 이것은 삼일 하나님, 즉 생명수로 상징되는 하나님과 어린양과 그 영께서 어떻게 그분 자신을 그분의 (보좌의 권위 안에 내포된) 머리의 권위 아래에 있는 그분께서 구속하신 이들에게 영원히 분배하시는 가를 보여준다.

II. 보좌가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중심이다.

- A. 우리의 일상 생활과 가족 생활과 결혼 생활과 사업하는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중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이어야 한다. 모든 것은 그분의 머리의 권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 B. 매일 아침 일어난 후 우리는 “주님, 당신을 저의 주님으로 취하는 새 날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 종일 당신의 머리의 권위 아래에 저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주님, 저의 생활 가운데 당신의 보좌를 세우소서. 주님, 저의 일상 생활과 온 하루를 당신의 보좌 아래에 둡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한다. 우리가 매일 아침 삼일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흐르는 생수를 가질 것이다.
- C. 우리의 체험 가운데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취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복종시킬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흐름을 누린다. 목적을 세우신 하나님과, 구속하신 어린양과, 이제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과정을 거치시고 삼일이시고 생명주시는 영이신 그 영께서 함께하시는 강이 흐른다.
- D. 그분의 머리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는 생명의 공급과 생명의 길이 있는 생명의 흐름을 누린다. 우리는 생명의 흐름 안에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보고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린다—계 22:2-5.

III. 에스겔서 1 장은 우리의 영적 체험의 최고점이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맑은 하늘을 갖는 것임을 계시한다. 이 지점에 도달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으뜸의 자리를 가지시도록 허락해 드리고 그분의 권위와 행정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겔 1:22, 26.

- A. 생물들의 머리 위에 있는 영적인 하늘은 두려운 수정같은 궁창인데 이는 수정처럼 맑다. 더욱이 이 하늘은 펼쳐져 있고 수정처럼 견고하며 변치 않는다—겔 1:22.
- B. 이와 같은 상태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서로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또 서로와 철저히 분명한 교통을 갖는다.
- C.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 거리낌 없는 순수한 양심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하늘의 이야기가 우리의 양심의 이야기이다—행 24:16.
- D. 보좌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시는 임재이다.
 - 1. 주님의 임재는 항상 그분의 보좌와 함께 한다. 주님의 보좌는 셋째 하늘에도 있고 우리의 영 안에도 있다—계 4:2-3, 히 4:16, 비교 딤후 4:22.

- a.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신(롬 8:34)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한 우리 안에(롬 8:10), 즉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우리의 영 안에(딤후 4:22) 계신다.
 - b.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처소, 하늘의 문인 벨엘에서 그리스도는 땅을 하늘과 연결하고 하늘을 땅으로 이끌어 오는 사다리이다—창 28:12-17, 요 1:51.
 - c. 오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처소이므로, 이제 우리의 영은 하늘의 문이다. 그곳에서 그리스도는 땅 위의 백성들인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고 하늘을 우리에게 이끌어 오시는 사다리이다.
 - d.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다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문을 통해 들어가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를 만진다.
2. 수정처럼 맑은 궁창 위에 있는 보좌는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 생활 가운데 맑은 하늘을 가질 때마다 우리가 보좌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가리킨다. 교회 안에 있는 권위는 맑은 하늘 위에 있는 보좌이다.
 3. 보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영적 생활 가운데 보좌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신다—롬 5:17, 21, 비교 마 28:18-20.
 4. 보좌는 남보석 모양을 갖고 있다. 남보석은 푸른 색인데 그리스도의 다스리시는 임제가 있는 하늘에 속한 상황, 상태, 분위기를 상징한다—출 24:10.

IV. 에스겔서 1 장은 보좌 위에 계신 분이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분께 여호와와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 있음을 제시한다. 이것은 보좌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과 사람 둘 다 이심을 가리킨다. 이분은 하나님-사람, 즉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겔 1:26, 28.

- A.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육체가 되심으로 사람이 되셨다. 그분은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사람으로서 승천하셨다. 이제 보좌 위에 계신 분으로서 그분은 여전히 사람의 아들이시다—요 1:1, 14, 6:62, 행 7:56, 59-60.
- B. 따라서 주 예수님의 승천 이래로 보좌 위에 사람이 있어왔다. 천년 왕국과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여전히 보좌 위에 사람이 있을 것이다—마 19:28, 계 22:1, 3.
- C.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의 비밀한 의도는 그분 자신을 사람과 연합시키심으로 그분이 사람과 같게 되시고, 사람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하나님과 같게 만드시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위해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창 1:26-28, 비교 사 14:12-14.
 1. 보좌 위에 계신 분과 네 생물은 모두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다. 이것은 땅 위에 있는 네 생물이 보좌 위에 계신 분의 표현임을 가리킨다. 이 표현은 인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다—겔 1:5, 딤후 3:15-16.
 2.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심으로써 그분의 표현을 위해 땅 위에 있는 사람을 얻기를 갈망하신다. 더욱이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보좌 위에 있도록 사람 위에 일하시는 것이다—엡 3:16-21, 계 3:21, 5:10, 20:4, 22:5, 마 19:28.
 3. 개척자와 선주자로서 주 예수님은 영광 안으로 들어가고 보좌 위에 앉는 길을 여셨다, 이제 그분의 많은 형제들인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있다—히 2:6-12, 계 3:21; 22:5.

V. 에스겔서 1 장은 보좌 위에 계신 사람의 모습이 두 방향을 갖고 있음을 말한다. 그분은 허리 위로는 합금의 모습을, 그리고 허리 아래로는 불의 모습을 갖고 계신다—겔 1:27.

- A. 합금은 빛나는 금속인데 금과 은을 섞은 것이다.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은은 구속을 상징한다. 따라서 어린양 하나님, 즉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겔 1:4.
- B. 허리부터 머리까지 사람의 윗부분은 느낌과 감각의 부분인데 그의 본성과 기질을 상징한다. 그분의 본성과 기질에 따라 보좌 위에 계신 주 예수님은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합금의 모습을 갖고 계신다.
- C. 사람의 몸의 아래 부분은 움직임을 위한 것이다. 허리로부터 그 아래에 있는 불의 모습은 하나님의 태우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움직이고 계시는 그분의 모습을 상징한다.

- D.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은 빛 비추고 감찰하고 태우는 불로서 오신다. 그런 다음 그분은 그 불을 통해 우리에게 빛나는 합금이 되시고, 우리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빛나는 표현으로 채워진다.
- E.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태워버리는 불이신 주님(히 12:29)에 의해 우리에게서 태워 없어진 후, 합금, 즉 구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된다.

VI. 에스겔서 1 장은 무지개가 보좌 위에 계신 분의 사방에 광채로 있음을 말한다. 이것은 보좌 위에 계신 주님 주위의 광채와 영광을 상징한다—겔 1:28, 계 4:3.

- A. 노아의 때에 구름 속의 무지개는 그분께서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사람과 온갖 살아있는 동물과 하신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상징이었다—창 9:13.
- B. 무지개는 세 기본 색인 붉은 색과 노란색과 파란색으로부터 산출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불의 색인 붉은 색은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킨다. 합금의 색인 노란색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킨다. 남보석 보좌의 색인 푸른색은 하나님의 의를 가리킨다(시 89:14).
 1.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은 죄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하는 세 신성한 속성들이다—창 3:24.
 2.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분은 이제 우리의 의와 거룩과 영광이시다—고전 1:30.
 3. 이제 우리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의와 거룩과 영광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타락한 자들인 우리를 남겨두시고 그분의 죄인들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인 무지개의 모습이다.
 4. 그 기초가 무지개의 모습인 새 예루살렘(계 21:19-20)에서 구원받은 이들의 총체인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의 빛을 반사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영원히 증거하는 무지개일 것이다.
 5. 에스겔서 1 장에 묘사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 생활은 이와 같은 무지개로 완결될 것이다. 그 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성취될 것이다.